

#해시태그 컷



한예슬의 보호색

연기자 한예슬이 '보호색 패션'을 선보였다. 한예슬은 클로버 무늬가 새겨진 블랙 우스와 나뭇잎 패턴의 스커트를 입었다. 시선을 끄는 건 그의 패션과 배경의 벽이 초록색이라는 점이다. 한예슬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재미있는지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팬들은 "보호색 패션인가?" "어떻게 찍어도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투데이 #한예슬 #웃는게예뻐 #보호색패션

연예뉴스 HOT 2

강남-이상화, 열애 이어 결혼설까지



최근 열애를 인정한 가수 강남과 스피드 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상화가 결혼설에 휩싸였다. 한 매체는 20일 두 사람이 올해 결혼할 예정이며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강남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와 이상화 소속사 본부이엔티는 "연애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다"며 "만난 지 5~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결혼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SBS '정글의 법칙' 라스트 인도양 편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내기 골프 차태현 '라디오스타' 하차



'내기 골프' 의혹에 휘말린 연기자 차태현이 MBC '라디오스타'에서도 하차했다. MBC는 20일 "차태현이 하차해 이날 녹화부터 당분간 김국진, 윤종신, 김구라 3MC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작진은 "프로그램 특성상 통편집이 불가"해 이날 방송에 차태현을 등장시켰다. 차태현은 KBS 2TV '1박2일'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개그맨 김준호와 내기 골프를 쳤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모모랜드, 다섯 번째 미니음반 '쇼미 쇼케이스



"아임 쏘 핫!" 그룹 모모랜드가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다섯 번째 미니음반 '쇼미 쇼케이스'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을 선보였다. 이들은 이 무대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간다. 사진제공 | MLD엔터테인먼트

"흥 넘치는 '아임 쏘 핫'...또 중독될걸"

(타이틀곡)

귀에 꽂히는 후렴구, 3연속히트 자신 "태하·데이지 뭉치지 최선 다하겠다"

3연속 히트도 문제였다.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넘치는 흥'으로 중무장하고 돌아온 걸그룹 모모랜드가 또 한 번 흥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뽕뽕'과 '배앰' 두 곡을 연속 히트시키며 2018년 최대 기대주로 꼽혔던 이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더 넓히겠다는 각오다. 18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다섯 번째 미니음반 '쇼미 쇼케이스'를 열고 "이전 앨범의 곡들이 모두 좋은 반응을 얻어 신곡에 대한 부담이 컸다"면서 "계속 노래하고 춤을 추다보니 중독 되더라. 우리의 매력 중독성 아닌가. 이번에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 모모랜드에게 이번 활동은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연말이 두 곡을 히트시키며 대중성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만큼 걸그룹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갈 기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모랜드는 이를 위해 앞서 두 곡을 만든 인기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다시 손잡았다. 타이틀곡 '아임 쏘 핫'은 어릴 가나 주목받고 화제의 주인이 되는 '핫'한 모모랜드의 '인싸'(인사이드) 라이프를 귀엽고 재치 있게 표현한 곡이다. 모모랜드 특유의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흥이 넘치는 멜로디가 돋보인다.

모모랜드는 "우리의 노래를 부르면 '핵인싸'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모모랜드만의 '흥'을 보여드리려 한다. '흥'이라는 확실한 콘셉트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또 9인조로 활동했던 이들은 이번 활동에서만큼은 멤버 태하와 데이지가 빠진 7인조로 나선다. 소속사 측은 건강과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앞서 데이지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 송윤영과 열애설에 휩싸여 활동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들은 "두 멤버가 함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들의 뭉치지 열심히 하겠다"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게 목표다. '핫'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annjoy@donga.com

요즘 극장가...돈 vs 우상 vs 악질경찰 나란히 개봉... 첫 주말 대결 관심

영화 '돈'과 '우상' '악질경찰'이 20일 나란히 개봉해 관객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극장가 비수기인 3월에 무게감 있는 한국영화가 3편이나 동시 개봉하기는 이례적이다. 첫 주말이 시작되는 22일 이후 어느 영화에 관객이 집중될지 주목된다. '돈'은 큰 돈 벌고 싶은 젊은 주식브로커의 노골적인 욕망을 담았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주식브로커 류준열과 몇 백억 원을 움직이는 '자전' 설계사 유지태, 이들을 쫓는 금융감독원의 조우진이 맞물려 주식의 세계를 펼친다. 예상 가능한 전개이지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3편 가운데 상업영화 작법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기도 하다. 한석규·설경규의 '우상'은 정반대의 작품이다. 이야기, 인물도, 장면도, 예측가



능한 게 없다. 이야기의 실체는 금방 드러나지 않고 애써 감춘 탓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영화에서 한석규는 아들의 뺑소니 사고로 위기를 맞는 정치인인, 설경규는 그 사고로 장애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 각각 나선다. 인간의 맹목적인 믿음이 어찌하면 상상할 수 있다고 전한다.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 면에서 '우상'은 3편 가운데 단연 압도적이다. 한 편의 영화에서 변주하는 배우들의 모습에 전율을 느낄 정도. 하지만 제약도 많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사유'와 '은유'가 많고,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감독의 고집스런 방식'이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선균 주연 '악질경찰'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다 거액을 마추는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형사가 세월호 참사로 친구들을 잃은 한 소녀를 만나 벌이는 이야기다. 세월호를 소재 삼은 첫 상업영화로 주목받았지만 아쉬움을 남긴다. 장르물에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쓴 제작진의 '판단' 역시 의문스럽다. 20일 현재 3편 가운데 예매율이 가장 높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연예

13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승리 이어 탐 '병가 특혜' 의혹 국세청, YG엔터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20일 YG엔터테인먼트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빅뱅의 또 다른 멤버 탐과 지드래곤의 부실 군 복무 의혹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시작되면서 YG엔터테인먼트는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양현석 대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유형업소로 운영하면서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세무당국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YG는 승리가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줄곧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다. 이와 맞물려 지드래곤의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19일에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탐의 병가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예정된 YG 정기 주주 총회에도 시선이 향한다. 이번 주총에는 양민석 YG엔터·YG플러스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한편 25일로 예정됐던 승리의 육군 입대는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자신을 둘러싸고 추가 제기된 해외 원정도박 의혹 등에 적극 해명하고 있다. 승리는 19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라는 여론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혜리 기자

위니아 초절전 인버터 냉·난방기

특별할인행사중

초절전 1등급에너지효율 인버터 냉·난방기

전기료걱정 NO!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 초기비용0원 - 최장36개월 장기할부
- ◆ 공장,업소,교회,사무실 무료방문견적
- ◆ 초강력 냉방,난방,제습 능력
- ◆ 저소음 컴프레셔 장착으로 실내에서도 저소음
- ◆ 전문 설치팀이 원하는 일자에 방문설치
- ◆ 본사전국유통망에 더욱 확실한 A/S
- ◆ 절감된 전기료만으로 기계값이?!

상담문의 ☎ 1577-9486 (전국 어디서나 무료)